

조달청, 기후위기 대응 혁신제품 적극 발굴 및 해외 수출

조달청소식

2025/08/25 10:50

<http://blog.naver.com/kangsan2023/223979605891>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 해결 지원한다.

- ‘(주)아라온’ 찾아 기후테크 혁신제품의 공공확산 위한 의견수렴
- 기후위기 등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제품 적극 발굴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2일 대전 소재 혁신제품 지정 기업인 ㈜아라온(대표 강재인)을 찾아 기후테크 혁신제품의 공공판로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아라온은 전자식 매연,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적 노이즈를 필터링하여 연료 분사량, 분사시점, 공기량 등 연소조건을 최적화하는 혁신제품이다.

해당 혁신제품은 조달청을 통해 국내 시범구매와 해외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거쳤고, 이를 발판삼아 지난해 12월에는 총

350만 달러 규모의 인도 수출 계약을 맺는 등 해외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공공이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과 초기시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24년도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섰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조달은 우리 기업이 초기 판로에 대한 걱정 없이 최고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역할을 한다”면서,

“AI, 로봇 등 신산업 분야와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다양한 혁신제품을 발굴해 환경과 경제 문제를 동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8년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신성장조달총괄과 배철규 사무관(042-724-6316)



조달청 이(가) 창작한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 해결 지원한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